

### 현대불교 1호에서 300호까지

1994년 10월 15일 부처님의 법향을 전하기 시작한 '현대불교'가 2000년 12월 27일자로 지령 300호를 맞았다. 불교언론의 기존 관념과 양식을 깨뜨린 신선한 신문, 불자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신형 지침서, 파사현정의 정론지, 시대를 앞서가는 신문, 창간 이래 6년 2개월의 길지 않은 세월동안 현대불교신문은 이러한 평가를 받

며 어느덧 21세기 포교주역으로 우뚝 섰다.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라는 사시(社是)는 이제 한국불교의 당면과제가 됐다.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신형의 길잡이 역할을 계속해온 '현대불교'는 앞으로도 전국 천만 불자들의 대변자 역할과 함께 새로운 시대 비전을 제시하는 제작으로 앞서 갈 것을 다짐한다.

# “생활 속에서 法香 전했다”

## 정법 구현

창간부터 현재까지 덕 높으신 스님의 법문과 신심깊은 불자들의 실천행은 부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97년부터는 인권·환경·도덕·윤리 등 각종 사회현상에 돌보기를 들이쳤다. 갈수록 혼란해지고 폐해져 가는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이렇게 들었다'와 '불자 세상보기'에서 가감없이 드러내고 이 시대에 필요한 부처님 가르침을 제시했다. 새천년을 앞둔 99년에는 지구촌이 겪고 있는 식량·종교·질병·환경·문명전환 등 인류가 당면한 현안들을 부처님 정법으로 풀이한 '불교지식포럼'을 매월 한차례씩 연재하기도 했다. 사회현상을 불교적 시각으로 바라본 '현대불교'의 눈은 독자의 시야를 넓혀줌에 충분했다.

지난 10월 발행한 '우담바라 파문'은 '현대불교'의 정법구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준 사례였다. 이때 '현대불교'는 일부의 그릇된 시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불교계의 '자화상'을 지적하며 정법신행을 촉구함으로써 교계 내외에서 갈채를 받았다.



간지 통틀어 단독으로 특종보도하는 개가를 올렸다. 또 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와 98년 수해 때는 불교계 단체와 불자들의 활발한 구조 및 구호활동을 생생하면서도 빠르게 전했다. 97년 겨울 IMF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불자들의 노력과 각급 단체들의 극복의지를 신속하게 알렸다.

이와 함께 올해 6월1일 교계 최초로 일간 인터넷 신문 부타 뉴스닷컴(www.buddhanews.com)을 오픈해 명실상부한 속보체제를 갖췄다.



## 신행 가이드

불자들이 움직이는 현장에는 어디든 달려갔다. 300여 직장직능 단체가 소개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고, 보살행이 이어지고 있는 곳에는 언제나 '현대불교'가 함께 했다. 또 불자들의 진솔한 실행체험담이나 수기를 꾸준히 게재, 귀감이 되게 했다.

특히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직장직능 단체들에 고정지면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현장감 넘치는 소식을 전했으며, 바른 실행생활을 유도하기도 했다.

각 실행단체들의 의식조사, 실행단체의 방향에 대한 좌담 등을 통해 실행의 지표를 모색했는가 하면 때로는 그릇된 실행에 대한 고언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계층과 연령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실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켰다.

이같은 생생하고도 폭넓은 보도로 인해 현대불교신문이 '한 번 읽고 마는 신문'에 머물지 않고 '한 주 내내 돌려가며 보는 신문'이 되고 있으며, 이제 올바른 실행생활의 키워드는 '현대불교신문'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 문화 창달

창간부터 전면에 걸쳐 연재를 시작한 고은 장편소설 '수미산'은 현대불교신문의 불교문화와 예술에 대한 마인드를 집약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당시 불교소설을 전문으로 연재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현대불교'는 이와 함께 문화·학술·출판에 각 1면씩 고정지면을 배치하고 불교계 뿐만 아니라 일반 문화계 현상을 자제하게 다루는 등 '문화 섹션' 신문으로서의 이미지도 굳혔다.

창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산문밖의 선'에서는 서예가, 사진작가, 중증음식연구가, 만화가, 무용가, 판소리명창, 건축가, 연극배우 등 내노라 하는 불교문화계 명사 150여명이 등장했으며, 121호(97.4.2)부터 시작한 '시방세계'는 영화, 연극, 무용, 전시회, 미술, 도예, 조각, 서예, 연애 등 다루지 않은 분야가 없다.

또한 불화(佛畵)와 기독교의 성화(聖畵)를 비교한 '불화와 성화', 나무·동물·다리 등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와 '가람의 장면들' '백두대간' 같은 연재물은 불교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깊이와 다양성을 알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



## 여론 주도

경주고속철·해인골프장·인각사림·지리산뫼 건립 등 정부추진과 교계가 참여하게 대립했던 사안들에서 현대불교신문의 진가는 유감없이 발휘됐다.

4년여를 끌었던 경주고속철 문제는 경주도심통과 반대여론을 조성하면서 고속철 백지화운동 서명자 명단을 전격 공개해 해결하는 등의 노력으로 정부가 다른 노선으로 결정토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해인골프장 건립과 관련하여도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분석기사와 교계 및 환경단체들의 움직임을 상세히 전하는 등 골프장 건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을 주도했다. 97년 담건설 계획으로 수몰위기에 빠졌던 인각사 보존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여론의 승리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지리산뫼 건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도로 반대여론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99년 생명나눔실천회와 공동으로 '장기기증 및 화장유인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장묘문화에 새바람을 불어넣었으며, 95년 '실행캠페인'과 99년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침시다' 캠페인을 통해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실행생활을 제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영우 기자(mwhan@buddhapia.com)

### 대중 속에서 숨쉬면서 긴 호흡 가다듬는 언론의 중심 '현대불교'



이창경  
신구대 교수  
출판 미디어과

## 왜 '현대불교' 여야 하나

정신적 압박감과 긴장을 조성하여 비인간화로 치닫게 하고 있다. 인간이 갖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사회 병리적 현상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의 홍수와 인간성의 부재라는 사회구조 속에 종교신문으로서 '현대불교'는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적 위기는 정보 전달이나 여론 형성의 한 차원 높은 그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 병리를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처방과 개인적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신선함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왜 현대불교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오늘의 미디어 산업은 다양화되어 있다. '현대불교'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정보로 지면이 채워질 때 '현대불교'의 정체성도 있게 된다. 일반적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차별화된 전문적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해럴드 라스웰은 매스 미디어의 기능을 환경 감시의 기능, 사회의 여러 부분을 조정하여 조화 있는 관계를 맺도록 하는 통합의 기능, 사회적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문화전승의 기능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환경 감시의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경 감시 기능은 여론을 선도하는 기능이다. 불교적 선의식(善意識)과 배치되는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불교도의 의식을 집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매체를 기다리고 있다. 정의를 위한 침묵과 말없는 동조를 구분할 수 있는 움직임 있는 매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재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편협한 지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때 흥법을 위한 진정한 구도자로서의 길이 열릴 것이다.

불교가 갖고 있는 정신주의적 성격, 자연과의 친화성 등을 21세기의 유력한 대안사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여타 종교와는 달리 불교의 핵심교리에 어긋나는 것까지 관용과 방편이라는 미명아래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과 진실에 입각하여 명쾌하게 보도하고 전달하는 책무를 가져야 한다.

불교는 사회 중심적 위치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문화관광부의 한 통계에 의하면 2000년 6월 현재 불교계에서 해외에 파송한 포교사는 241명인데, 개신교는 9049명, 천주교는 586명, 원불교는 307명이라고 한다. 우울한 통계가 아닐 수 없다. 내 마음자리 하나 반듯이 닦아 선업 행하면 된다는 생각,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간다는 생각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다시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거짓과 위선이 발붙이지 못하고 정의와 진리가 흥망된 시방정토를 만들어가는 것, '현대불교'가 이끌어 가면 가능하다.

대중 속에서 숨쉬면서 긴 호흡을 가다듬는 사천왕, '현대불교'가 바로 세간으로 뒤흔어낸 사천왕이기를 바란다. 거기에 왜 '현대불교'여야 하는가 하는 해답도 있다.

###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박물관 7개소, 1,621점, 3,674컷 수록)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畵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 이 불화집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자비심이 피어나고, 민족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긍심이 확고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석경 크스님-

◆ 한국불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이 불화집의 간행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지닙니다. -조선일부인-

###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가로 257×348mm (타블로이드판형)
- 면수: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논문, 화기 수록)
- 장정: 전면 컬러·양장제본
- 발행처: 성보문화재단연구원
- 가격: 각권 90,000원

# 韓國의 佛畵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권전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畵)들은 정엄한 불국도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위대한 상호에서 우리나라의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사단법인 성보문화재단연구원에서는 10년의 조사와 촬영 끝에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을 완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완간을 기념하여 2개월 동안 특별 할인판매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단연구원 이사장 범 하 합장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단연구원 ☎ (02) 587-6612, 팩스 (02) 586-9078

### 5년 전의 약속, 1차분 20권 마침내 완간!



『한국의 불화』 1차분 간행목록(1996년~2000년)

- |                  |                   |
|------------------|-------------------|
| 제1권 통도사 본사 편(상)  | 제11권 화엄사 본말사 편    |
| 제2권 통도사 본사 편(중)  | 제12권 선암사 편        |
| 제3권 통도사 말사 편(하)  | 제13권 금산사 본말사 편    |
| 제4권 해인사 본말사 편(상) | 제14권 선운사 본말사 편    |
| 제5권 해인사 본말사 편(하) | 제15권 마곡사 본말사 편(상) |
| 제6권 송광사 본말사 편(상) | 제16권 마곡사 본말사 편(하) |
| 제7권 송광사 본말사 편(하) | 제17권 법주사 본말사 편    |
| 제8권 적지사 본말사 편(상) | 제18권 대학 박물관 편(I)  |
| 제9권 적지사 본말사 편(하) | 제19권 대학 박물관 편(II) |
| 제10권 월정사 본말사 편   | 제20권 사립 박물관 편     |

『한국의 불화』 원간 기념 특별가 200점 한정보급  
기간: 2000년 11월 2일 ~ 12월 31일  
보급가: 1백만원 (20권 1질, 현금결제에 한함)